조달청-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논의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정길용)은 8일 황인홍 무주군수를 방문해 조달행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양 기관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기관 간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나눴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상반기 조기집행을 위한 조기발주를 요청하고 도내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 전통문화상품 등 주요 조달사업에 많은 이용과 관심을 당부했다.

정길용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상반기 경기침체 대응을 위한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해 수요기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요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은 기자

덕진소방서, KC환경서비스 찾아 화재 현장 행정

최근들어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 화재 증가가 많아져 화재에 대한 피해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자원순환시설 화재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자원순환시설 중 폐기물 매립장과 폐기물 처리업체는 각종 가연성 물질이 많이 적재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빠른 연소 확대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을 지닌 시설이다.

또 폐기물 화재의 특성상 진압에 소방 인력·장비 등 많은 소방력과 시간이 요구되고, 화재 원인 또한 자연발화 등으로 파악이 어려워 예방과 관리 또한 어려움이 따른다.

최근 5년간 도내 자원순환시설 화재는 총 29건으로 이로 인해 1건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8억1917만 원이 발생했다.

/김영태 기자

김제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구호 성금 전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7일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김제시청 소속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성금 1,629만5,000원을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전달했다.

정성주 시장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이재민, 유가족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온정의 손길을 함께해준 김제시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대지진으로 인해 긴 시간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된 성금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인도적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병무청장, 병력동원훈련 집행현장 방문 격려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은 2023년도 병력동원 훈련 소집(이하 동원훈련)을 지난 6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실시한다.

차량을 이용한 첫 집단수송으로 8일 중간집결지(전주시, 장수군 소재)에서 동원훈련장(완주군 소재)까지 총 6대의 버스를 운행해 예비군 150여 명을 수송했다.

권대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중간집결지(전주시 소재)를 방문해 안전수송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을 격려했다.

또 수송차량에 직접 탑승 후, 훈련장까지 이동하며 군 관계자와 군 부대의 방역절차와 인도인접과정을 참관했다.

권대일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올해부터 동원훈련이 2박3일간 정상실시됨에 따라 철저한 준비로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어르신 다양한 의료제공 · 돌봄 치료

무주군-전주 아중요양병원, 양 · 한방 협진 협약체결

무주군은 전주시 아중요양병원(병원장 장원욱)과 무주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양 · 한방 협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지난 7일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장원욱 아중요양병원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의 공동발전 및 양질의 의료 제공으로 상호 협력적 연계를 통해 무주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해 나갈 것 등에 협약했다.

군은 아중요양병원과의 양 · 한방 협진 협약으로 장기적인 입원 · 재활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의료제공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내 집 같이 편안한 돌봄 · 치료를 제공받게 됐다.

이로써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로 만성 질환 및 의료기관 이용율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에서 치료 · 돌봄 · 재활이 어려운 지역내 어르신들이 상급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 혜택이 가능해졌다.

황인홍 군수는 "장기간 입원과 재활 등이 필요한 지역내 어르신들에게 양 · 한방 협진으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일상으로 복귀 하는데 큰 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장원욱 아중요양병원장은 "무주군민이 장기적인 입원 · 재활에 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아낌없는 편의 제공으로 편안하게 요양 치료는 물론 빠른 회복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중요양병원은 입원과 더불어 외래진료를 상시 운영, 내과, 외과, 재활의학과, 신장내과, 한방내과, 한방침구과 등 양 · 한방 7개과와 인공신장센터, 치매안심병동 포함한 92실 427병상의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고투과인공신장기, 고빈도 흉벽진동기와 물리치료 및 임상병리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들에게 옥상 하늘정원을 만들어 쉼과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의료기관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시-우체국, '복지등기 공익우편서비스' 협약 체결

남원시와 남원우체국은 8일, 시청에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복지등기 공익우편서비스'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서비스는 남원시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가구에 복지등기(복지정보) 우편을 발송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배달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실태 및 주거환경 등 복지기초자료를 파악, 남원시에 회신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집배원이 파악해준 복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위기가구를 발굴해 복지상담과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고 긴급한 경우 긴급지원을 통해 신속하게 보호조치하고 관리하게 된다.

이난수 우체국장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우체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은영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체국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조기발굴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완주군로컬JOB센터 업무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완주군로컬JOB센터(센터장 신상철)와 업무 협약을 8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두 기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지역 내 고용 확대를 위해 농가일자리 연계, 영농교육 지원·상담·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귀농·귀촌 희망 법무보호대상자 발굴 및 구인처 연계, 구인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적합 인재 추천, 법무보호대상자 사회 정착을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완주군로컬JOB센터 신상철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지역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전북지역 법무보호대상자 고용 창출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와 뜻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은경 기자

정읍시의회 연구단체, 민간위탁제도 연구회 간담회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민간위탁제도 연구회'가 지난 2월 15일 등록하여 3월 8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정읍시 민간위탁제도 연구회는 서향경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오승현, 송기순, 한선미 의원이 참여하며, 3월부터 10월까지 정읍시 민간위탁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연구회 활동의 첫걸음을 시작하였다.

서향경 대표위원은 "연구회의 목적은 민간위탁 제도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연구하는데 있고, 향후 정읍시민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덕진경찰,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전주덕진경찰서장실에서 8일 2023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태형 덕진경찰서장은 원광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새로운 외부위원 3명을 추가 위촉했다.

앞으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범죄심사에 대해 공정과 다양성을 넣어 심사에 임할 것이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 정도, 죄질, 피해 회복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등 양형기준을 고려해 전과자를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한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외부위원 인력풀을 보강해 피의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건협 메디체크연구소, 나은희 소장 팀 논문 발표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 메디체크연구소 나은희 소장(진단검사의학전문의) 연구팀은 '국내 1차 진료기관에서 종양표지자 검사의 참고범위 설정 및 검증: 후향적 단면 조사연구 (Establishment and validation of reference intervals for tumor markers (AFP, CEA, CA19-9, CA15-3, CA125, PSA, HE4, Cyfra 21-1, and ProGRP) in primary care centers in Korea: A cross-sectional retrospective study)'를 Health Science Reports 최근호에 발표했다.

Health Science Reports는 의학 및 건강 과학 분야에 관한 연구 논문을 다루는 open access 저널이다.

종양표지자검사는 암 진단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 또는 암 환자 치료에 대한 경과를 관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스크리닝 검사로서, 혈액을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종양표지자검사의 임상적 적용을 위해서는 인종, 성, 연령 등에 맞는 적절한 참고범위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번 연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건협 16개 건강증진의원에서 종양표지자(AFP, CEA, CA19-9, CA15-3, CA125, HE4, PSA, Cyfra21-1, ProGRP) 검사를 받은 214,159명(18세~98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CT, MRI, 초음파 및 혈액검사 등을 함께 확인해 암이나 잠재적인 비건강인을 제외하고 참고범위를 설정했으며, 다른 건강검진자들에서 이의 적절성을 검증했다.

연구결과, AFP, CEA, CA19-9, Cyfra 21-1 및 ProGRP에서 성별에 따른 참고범위의 차이를 보였다($p<0.05$). AFP, CEA 및 Cyfra21-1은 남성에서 더 높게, CA19-9 및 ProGRP는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

농협 장수군지부, 군에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NH농협 장수군지부(지부장 정영선)는 8일 장수군에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NH농협은행과 장수군 간 공동협약에 따라 지난해 1년간 장수군청 법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액의 0.2~1.0%를 장수군 발전 기금으로 적립한 것으로, 총 4,692만2,980원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기금 4,692만원은 지난해 3,764만원 보다 25% 증가했다.

장수군지부는 2012년 농협은행 출범 이후 협약을 맺은 농협카드 적립금으로 현재까지 2억1,656만원을 전달했다.

정영선 지부장은 "NH농협은행이 지역 발전을 위해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장수군민을 위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훈식 군수는 "NH농협과 제휴를 통해 적립된 기금이 장수군 발전을 위해 활용하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완산소방서, '안전하기 좋은 날(D-day)' 캠페인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장수)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D-day)' 캠페인을 8일 실시했다.

'안전하기 좋은 날' 캠페인은 매월 둘째주 수요일 진행하며 매년 증가하는 화재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 주도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고, 화재위험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화재에 취약한 전주시 자원순환 특화단지, 전주한옥마을, 전통시장 등 13곳을 선정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자율점검표 배부 및 작성안내 △소화기 점검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화재위험요인 제거, 안전사용 당부 △전기·가스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안전시설 권고 △전통시장 보이는 소화기 정비법 안내 △최근 발생한 자원순환단지 화재 전파 및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당부 등이다.

/김영태 기자